



# 11, 12월의 해충 (Ⅲ X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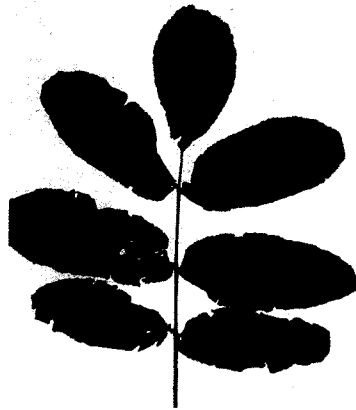
-호도나무 탄저병 (炭疽病) *Glomerella cingulata*

**탄저병**은 잎과 엽병, 녹지 (綠枝) 및 과실에 발생하는 병으로, 병든 잎과 가지는 기형으로 뒤틀리고 조기에 낙엽이 되어 생장이 저하된다. 따라서 묘목에 병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과실은 과육이 부패하여 조기낙과되므로 호도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된다.

○분포 : 한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기주식물 : 호도나무, 가래나무

○병징 및 표징 : 잎, 엽병, 과실 및 녹지에 병이 발생하며 주로 잎에 많이 발생한다. 잎에는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회갈색의 병반이 형성되며, 엽맥 쪽에는 흑색으로 보이는 때가 많다. 엽병과 녹지에는 선명한 칠향색 (漆黑色)의 병반이 나타나며 점차 병반의 중앙부가 움푹 들어가면서 회색으로 변하고 주위의 색깔은 약간 퇴색한다. 때때로 여러 개의 병반이 서로 합쳐서 환부가 크게 된다. 병이 심하게 발생하면 환부가 엽병을 일주하여 환부의 윗부분이 시들게 된다.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병반 위에 담황색의 병원균



◀ 호도나무 탄저병 피해지

▶ 호도나무 탄저병 피해과



의 분생포자괴가 형성된다.

○병원균 : 자낭각은 병든 낙엽이나 가지의 표피 밑에서 형성되며 흑갈색~흑색을 띠고 크기는 직경이 85~300 $\mu$ m이다. 병원균은 자낭각, 균사상태로 병든 잎이나 가지에서 월동하여 이듬해 봄에 자낭포자가 되어 기주식물로 비산 병을 일으킨다(제1차 전염원), 감염된 부위에서 분생포자가 형성되어 가을까지 반복 전염을 계

속한다(제2차 전염원).

○방제법 : 병든 가지와 낙엽은 동기에 잘라 태우고 수세를 왕성하게 한다. 곤충이 가해한 상처부위에 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해충구제를 철저히 한다. 6월 상순부터 9월 하순까지 배노밀수화제 2,000배액 또는 지오판수화제 1,000배액을 10일 간격으로 4~5회 살포한다.